

전국 최장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아웃도어 관광 활성화 '맞손'

장수군, '장수 승마로드'에 2000여그루 식재 길이 10km 이르러

장수군은 넓은 부지와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졌지만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졌던 '장수 승마로드'에 메타세쿼이아 2,000여 그루를 심어 전국 최장 10km 메타세쿼이아길을 조성해 장수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장수군의 상징이 될 이곳은 약 10km에 이르는 전국 최장 메타세쿼이아길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22일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완료를 기념해 군청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살피고 걷기 행사를 가졌다.

살얼한 날씨 속에서도 최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각자 느낀 점, 발전 방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약 2시간에 걸쳐 메타세쿼이아길을 완주했다.

'장수 승마로드'는 장수를 승마레저 파크에서 천천면 월곡승마장까지 산기슭을 따라 조성된 길로 왕복 2차선 비포장도로에 잔디를 심어 승마용으로 활용되던 곳이지만 이용이 저조하고 효율성이 낮았다.

군은 이곳을 썬벙생 생태공원, 외룡자연휴양림 등 주요 관광지점과 연결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2일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완료를 기념해 군청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살피고 걷기 행사를 가졌다.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100마일 트레일 코스로 개발하고 트레킹에 적합한 '자연과 사람, 반려견 그리고 길이 하나가 되는 특화거리'로 만들어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고자 한다.

메타세쿼이아는 빠르게 성장하며 키가 크고 웅장한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봄의 푸른 잎사귀와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우며 미세먼지 제거와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나 탄소 흡수를 통해 기후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훈식 군수는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졌던 '장수 승마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전국 최장의 10km 메타세쿼이아길을 조성했다"며 "산책, 맨발걷기, 트레일레이스, 반려견 동반 걷기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이 길에서 자연과 힐링할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젠아웃도어, 업무협약 체결... 아웃도어 메카 기대

진안군은 지난 22일 (주)젠아웃도어와 아웃도어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진안군에서 주최하는 하이킹, 러닝, 백패킹 등 액티비티 행사 기획·운영 및 대행, △(주)젠아웃도어 주최의 전국단위 백패킹, 하이킹, 캠핑 등 아웃도어 행사의 정례화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서명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트레킹, 백패킹 등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에 강점을 살려 아웃도어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데 젠아웃도어와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다양한 액티비티 행사 기획·추진의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젠아웃도어의 결합으로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치유관광 발전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식회사 젠아웃도어의 대표 브랜드는 '제로그램(zero gram)'으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의 원칙인 쓰레기 되가져가기와 물품 재사용 등 환경수칙을 지키자는 의미의 아웃도어 브랜드로 아웃도어 의류, 장비는 물론 백패킹 및 트레킹 이벤트로 국내 아웃도어 마니아층에게 사랑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과 젠아웃도어의 인연은 2015년부터 시작돼 지난 10월에는 젠아웃도어에서 진안군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백패킹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진행된 '코리아 백패커스데이'에서는 600여명의 참가자들이 진안을 대표하는 트레일을 직접 경험하고 지정된 야영 장소인 주천생태공원에서 1박 2일간 머무르며 아웃도어 기반 축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기도 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치유·힐링 관광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며 "젠아웃도어와 손을 맞잡고 활발한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논의하고 진안군이 아웃도어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배우고 실천하며 미래농업 육성

제16기 반딧불 농업대학 졸업식

무주군 제16기 반딧불농업대학 졸업식이 지난 22일 무주농업과학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졸업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분자과 배태곤 학생이 지역발전과 농업대학 과정 중 교육생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으며 사과과(심화)이 강혁 학생과 북분자과 강봉중, 박병호, 임택학 학생이 개근상(반딧불농업대학장)을 받았다.



스마트강소농과 최효일 학생은 '열정상(반딧불농업대학장)'을, 사과과(심화) 김옥준, 백양성, 오세정 학생은 '성실 이수상(반딧불농업대학장)'을 수상했다.

졸업생 대표로 졸업증서를 받은 스마트강소농과 이기진 학생은 "농사를 지

으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과정을 끝까지 이수해서 뿌듯하다"라며 "농업대학 과정이 농업인으로서 역량을 키우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농업대학은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전문 경영 능력개발, 그리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 111명의 졸업생과 수료생, 교육 이수자(청강생)를 배출(2009년 개교 이후 총 1,884명 배출)했다.

황인홍 군수는 "기후변화와 고품질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농업환경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품소 실천하며 무주 농업의 중심에 있는 농업인들이 신명나게 농사지를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수료식 열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수료식이 지난 22일 안성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박종환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과 수료생(8세대 8명) 등 2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와 관련 영상 시청, 수료증 수여, 소감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수료생 중 8세대 중 7세대가 우리 군에 정착 의사를 밝혔다"며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 무주를 향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기

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2017년~)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위한 시설로, 올해는 3월부터 토마토 재배시설 1동(660㎡)과 표고버섯 재배시설 1동(170㎡) 그리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배추, 무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공동경작지 1곳(1,236㎡)이 운영됐다.

입주자들은 이곳에서 귀농·귀촌 기초과정과 영농 재배 이론 및 실습, 마을 탐방 과정 등 총 58회 243시간 교육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스포츠 강좌이용권 스키체험 참여자 모집

무주군이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4일과 21일, 22일 3일간(08:30~19:00)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스키체험 강좌를 진행한다.

스키체험 강좌는 읍면·도서 지역 등 경제, 문화, 지리적 취약계층의

유·청소년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모집 인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출생일 기준 2006.1.1.~2019.12.31.) 유·청소년 총 74명이다.

1회당 체험 인원은 24명으로 참가 희망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 또는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체육진흥팀에 방문·신청(3일 중 1일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미래인재 육성 위한 중학생 학습코칭 운영

진안군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수련관 3층에서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코칭을 운영했다.

2024년 지역오픈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습코칭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게 됐다.

올해 진안군에서 처음 시행된 학습코칭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관내 중학생 20여명이 참여하여 10일간 진

행태 모든 교과 학습의 기본이 되는 문해력 향상 방법, 과목별 학습법, 시간 관리법, 노트 필기법에 대해 교육했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학습코칭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군은 내년에 사업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올해 목표한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 2024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

임진숙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재무과 세입팀장과 읍면 징수담당 팀장 11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부당산과 차량 압류·공매, 지속적인 차량 보호관 영치활동,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징수절차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8억2천만원 중 3억4천만원의 징수를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체납 차량 변호판 영치 강력 추진

장수군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22일부터 29일까지 변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군은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변호판 영치란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변호판을 떼어내고, 차량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는 자동인식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장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주·야간 영치를 병행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